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김 은 영

A series of 18 horizontal dotted lines intended for writing the author's contact information or affiliation details.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폭력적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연구

김은영*

〈요 약〉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폭력적 테러활동, MAROB 데이터, 양적분석연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

*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범죄수사학과 조교수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
|--|

I. 서 론

디아스포라가 테러활동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서의 테러활동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높은 보안환경으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유럽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의 테러활동이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지속적인 자살테러를 수행할 지하디스트요원을 모집한다는 등의 테러활동에 디아스포라가 적극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Hoffman, 2007).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테러리즘의 관계의 새로운 트렌드는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수용한 수용국가에 대한 테러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 디아스포라는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출생국가에서 거주할 수 없을 때, 즉, 식민지 상태이거나 불법적 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을 때, 자신의 출생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대해 폭력적 저항행위를 하는 것이나, 관련 테러집단의 테러 활동을 지원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속된 저항활동의 일부로 인식되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의 형태처럼, 디아스포라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대한 테러활동이나 그 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위들은 최근의 디아스포라를 이용한 테러집단의 모두스 오페란디(modus operandi:MO)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테러활동에 관여된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지하는 측

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으로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을 모집하고, 재정적 자원 및 물품을 공급하며, 직접적으로 테러집단의 운영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와 테러리즘의 결합이 새로운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안보와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박준석, 2008; 윤민우·김은영, 2012). 이는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 다양한 종류의 인종과 종교, 그리고 이념을 나누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존재하고,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존재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정부와 관련 학자들은 자국 내의 디아스포라의 테러관여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2001년의 911사태와 영국의 2005년 London 지하철 폭발물 사건 등을 계기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디아스포라와 테러리즘의 연관성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소수지만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관련연구 중 경험적 연구는 매우 소수에 그치고 있다(윤민우·김은영, 2013).

이와 관련해 더 심각한 지식의 간극은, 바로 중동지역과 특히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경험적 연구는 물론이고 문헌분석을 기반 한 서술적 연구도 매우 적다는 사실이다(김은영, 2013). 이처럼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에서의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의 연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나이지리아 등의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테러사건의 끊임없이 발생하는 초위험지역이기 때문이다(윤민우, 2012, 2013; 윤민우·김은영, 2012, 2013).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자살테러사건들이 디아스포라출신의 자살폭탄테러범죄자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매스컴의 보도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국민의 안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올해만 해도 국내 관광객들이 사상 및 부상의 피해를 입은 이집트의 차량폭발 자살테러사건과 KOTRA의 한 석우 관장의 리비아납치사건 등이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 내의 디아스포라가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실제 테러집단의 폭력적 테러활동이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험적 연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테러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들이 제공하는 지원들 중 어떠한 지원이 실제로 테러집단의 폭력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결과는 디아스포라와 테러리즘의 새로운 결합의 트렌드가 폭력적 테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디아스포라의 개념 및 급진화된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diaspora)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어왔고 이에 따라 하나의 명확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디아스포라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관련된 정서, 문화, 그리고 사상들의 공통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신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보다, 구별되게 자신의 모국, 또는 자신의 선조들의 모국과 연관된 사상, 정서, 문화, 종교 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집단의 사람들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사람들과 다른 모국가로부터의 출국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 문화, 그리고 인생의 역경 등이 독특하게 구별되는 이질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유대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을 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이 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많은 인종적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디아스포라라고 스스로 명칭 한다. 즉, 자의 또는 타의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난민들, 피해자들 그리고 거주 국가에서 이질적인 정체감을 느끼는 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가 통일되게 사용되지 않지만 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을 주장하였다(Cohen, 1997; Shain & Barths, 2003). 그 중 Shain과 Barths(2003)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공동의 출신지역 또는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인종적 또는 종교적 모국의 국경의 외부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다(p.452)”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부의 갈등 및 분쟁상황, 세계화의 교통과 통신의 기술적 발전을 통한 통신과 거주 의 용이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문화와 정치적 구별적 경계선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상황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증가한 디아스포라는 위의 정의와 같이 자신의 모국가로부터 정서적인 애착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애착은 인종, 종교, 언어, 지역, 그리고 모국가의 특성 등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신의 모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뿐만 아니라 타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유사한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정서적인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에는 디아스포라의 모국가에 대한 애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emmers, 2001). Demmers(2001)는 이에 대해서 디아스포라를 “장거리의 외부에 떨어져 있는 국가주의자들(the long distance nationalists)”이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국가의 자유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 거주국가로부터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과 재원을 공급하려고 하는 급진적 아젠다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Lyons(2004)이러한 디아스포라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화합정책 등을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자신의 모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모국가가 가지는 전통 등을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수정하는 정책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관점에서는 결국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거주 국가에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 다수의 이민자집단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공통적인 인종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일국가출신의 이민자들 간에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민자들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앞서 언급된 공통점으로 디아스포라를 나누는 전통적 형태의 개념은 테러와 결합하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해서 테러와 결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모국의 발전과 독립 그리고 번영 등을 위해 모국 내의 갈등과 분쟁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국가와 그 정부들을 타깃으로 삼아 분쟁 및 폭력 활동을 펼치거나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 또한 새로운 개념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점인데, Sheffe(2005)에 의하

면 이러한 분쟁 및 폭력 활동은 자신들의 모국의 단체들이나 집단들의 항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이들이 경험하거나 받아야만 했던 행위들에 대한 “복수”적 행위로서 폭력이나 테러행위를 자행한다고 한다. 이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모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할 때, 그리고 자신들의 모국가의 어려움이나 곤궁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필요에 응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보다 새로운 형태의 테러활동에 가담하는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Hoffman(2007)은 RAND 연구보고서에서 최근의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테러사건과 연결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Hoffman은 디아스포라가 모국가의 분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인 것이 최근의 일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에 로비활동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서의 영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켰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하여, 아일랜드의 독립을 요구하던 테러집단인 Irish Republican Army(IRA)의 무장활동에 약 70%에 달하는 무기의 공급을 미국계 아일랜드 디아스포라가 지원했던 사실과 타밀 디아스포라가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LTTE)의 테러활동을 위해 전 세계적 디아스포라의 네트워크를 사용해 무기를 조달하고, 자금지원을 지속하였던 것을 예를 들었다. 이를 위해서 LTTE는 타밀 디아스포라의 지속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이들의 급진화를 이끌어내었다.

Hoffman은 이처럼 급진화된 디아스포라는 테러활동을 하는 조직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들의 모집을 지원하며, 무기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에 대한 로비활동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이전의 디아스포라의 활동과 구별되는 것은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 중, 거주 국가에서 의사 등의 직업과 안정된 가정을 꾸린 사람들 중에서도 모국의 테러집단의 테러활동에 단순한 지원이나 지지를 보내거나, 직접 가담 시, 지엽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지휘부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살폭탄테러를 감행하는 지하디스트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테러를 감행하는 대상이 자신들의 모국가의 분쟁대상이 아닌 거주 국가 즉, 자신들을 받아들인 국가와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요르단 출신의 Nidal Ayad의 경우,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안정된 직업

을 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꾸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례로 보이는 이민자가 “Witch’s brew”라는 폭력테러집단의 지휘자가 되어서 1993년 세계무역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테러를 감행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005년 런던의 지하철 폭발물 사건과 1995년 프랑스 파리의 시내의 폭발물 사건 등을 언급하며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급진화가 2001년 911이전부터 진행되어왔었고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 국가와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테러와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Demmers (2001)와 Lyons(2004), 그리고 Hoffman(2007) 등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새로운 개념의 급진화된 디아스포라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 일반 이민자집단과 구별되는 집단의 사람들로써 자신들의 모국가에 대한 정서적 애착, 즉, 종교, 정책, 문화, 그리고 언어 등의 연결을 지속하며, 더 나아가 장거리의 외부에 거주하는 국가주의 자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모국, 또는 모국의 단체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와 시민들에게 폭력과 테러를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이해하였다.

2. 디아스포라와 폭력적 테러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의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출현 이전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들은 자국 내의 디아스포라의 모국을 대표하는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조 등을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외의 문제로 이해하여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자국 내의 폭력과 테러활동과 연관 짓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21세기 이후 빈번히 발생하는 이민자들에 의해 주도된 테러사건들을 겪으며, 이러한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출현에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디아스포라가 국가의 안보와 테러의 위협의 새로운 위협대상으로 인식되자, 이들의 위험성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들이 최근들어 점차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Hoffman, 2007; Koinova, 2013; Sirseloudi, 2012; Post & Sheffer, 2007; Roth & Sever, 2007; Victoroff, Adelman, & Matthews, 2012). Post와 Sheffer(2007)의 연구는 미국과 유럽 내의 무슬림 이민자집단 내에서 테러와 결합하는 형태의 무슬림 디아스포라가 출현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디아스포라가 테러리즘과 결합하는 형태로 무장활동을 하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하였다. 즉, 국가 내의 무슬림 지역사회와 조직들의 크기와 영향력이 클수록, 그리고 거주 국가의 국민들과 정부들이 자국의 인종적, 종교적 이질성에 대해 허용적인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주요 인물들이 자신들의 모국의 무슬림 단체들과의 연관성이 높고, 지리적으로도 가깝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아스포라의 무슬림 사회의 종교적 리더십의 급진화 정도가 디아스포라의 폭력적 활동에의 관여의 위협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Sirsicloudi(2012)의 연구는 독일 내의 터키 디아스포라의 한 집단인 쿠르드족의 PKK집단의 테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결합관계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슬람의 종교와 디아스포라의 정신적 요구가 결합하여 쿠르드족의 테러활동에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쿠르드 디아스포라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얻어내고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독일 내의 쿠르드 디아스포라가 PKK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폭력적 보복 등을 사용하도록 한 PKK 단체의 강압적인 리더십과 정책이 개인적 위기와 위협을 형성하여 이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지만, Roth와 Sever(2007) 역시 폭력적 테러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범죄활동과 관련이 되어있는 PKK의 폭력 및 범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지적하였다.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 퍼져있는 디아스포라가 PKK의 강력한 단일 리더십과, 이 집단의 본부가 자리 잡은 국가인 터키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PKK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리아 등의 지원 국가의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Koinova(2013)는 미국과 영국 내의 아르메니안 디아스포라가 2008년 코소보의 독립을 이루어 내기까지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폭력적 테러활동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과 영국의 아르메니안 디아스포라가 자신들의 모국가의 지역에서 지속되는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이들의 테러와 연계되는 급진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내의 정치적 엘리트들의 존재가 디아스포라의 폭력적 급진화의 위협성 정도를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ctoroff 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2012)는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관련된 자

살폭탄의 동원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유럽국가에서 1,627명의 무슬림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이들이 자살폭탄테러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자들은 거주 국가에서 경험한 나쁜 차별의 경험이 무슬림 디아스포라의 자살폭탄테러를 정당화하는 위험을 매우 크게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인 것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Hoffman 등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RAND 연구소에서 출간한 논문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폭력과 테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의 사례와 특성들을 논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디아스포라와 테러 및 폭력적 행위의 관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관련된 연구는 매우 극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로 연구자들의 문헌분석과 일화적 사례에 근거한 서술적 논의에만 그치고 있고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 중에서 아프리카나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와 이들의 급진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이 지역에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없거나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어려움 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3. 중동과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에 관한 연구

앞서 언급된 RAND의 2007년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테러활동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은 Menkus(2007)의 아프리카 내의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와 그들이 내포하는 위협에 관한 논의이다. 이 논의는 매우 드물게 주목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와 테러의 연관성과 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우선, Menkus는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는 주로 이민자들 또는 국외출신의 2세인구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는 대부분 사하라 지역 아래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디아스

포리는 아프리카 내의 내전과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대부분 모슬림이며 따라서 이슬람의 전통과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국과 관련된 테러집단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는 에리테리안(Eritreans)이고 이들 국외의 디아스포라는 전체 에리테리안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국으로 송금, 사업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선거 때에는 정치적인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의 예로, 그 외의 유럽의 오르모(Ormo) 디아스포라는 자국의 the Oromo Liberation Front라는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유럽 내에 위치한 다른 모슬림 디아스포라들이 아랍의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알카에다나 기타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들과의 연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는 이들의 유럽 및 타 국가에서의 경제적 빈곤, 사회적 및 정치적 약자상태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테러집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내부와 이라크계 지역 내에서 이들 디아스포라의 활동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프리카 내부의 테러활동과 관련해서는 디아스포라의 관여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테러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조직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출신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출신이 아닌 소수의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내의 불법적 경제활동, 부패, 서방계를 대상으로 한 테러활동 등이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점차 글로벌테러집단을 표방하고 있는 알카에다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 내부의 정세가 테러의 급진화, 극단화가 진행되고 있어 디아스포라의 급진화와 이들의 테러활동에의 동원이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즉, 최근에 더욱 심각하고 활발한 테러활동을 펼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보고아람과 같은 테러집단의 활동이 점차 더욱 적극적이고 극단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테러활동을 감행하고 있어 아프리카지역의 테러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간의 내전과 분쟁 등으로 인해 무정부상태나 통제에 있어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테러집단들의 장악이나 확보가 더욱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 지역의 대중들은 테러집단의

활동에 매우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감정을 보이고 있어서 급진화된 디아스포라와의 연계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자들은 아프리카의 테러와 위기는 알카에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심각한 위협을 주는 테러발생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프리카와 그와 종교적으로 연계된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와 테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연구가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테러집단의 활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경험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과 그 외 선행연구에서 디아스포라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양한 주요 관련요인들을 포함하여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디아스포라의 지원(비군사적 재정적 지원, 비폭력적 군사 지원)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 디아스포라의 모국가의 고통에 대한 테러집단의 대응적 전략의 선전은 디아스포라의 테러활동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종교성의 표방정도와 디아스포라사회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기위한 강압적 테러집단의 요구,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은 테러집단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설 4. 테러집단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거주국가의 강압적 진압이나 대응, 그리고 테러집단의 약한 리더십은 디아스포라의 테러집단의 활동지원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Minorities at Risk 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수집된 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이하 MAROB) 데이터가 사용되

었다. 우선 MAROB의 모연구사업인 Minorities at Risk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에서 일부 인종적 소수집단들이 국가나 정치적 권위에 대해 테러나 폭력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저항 및 극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과격단체 및 극단적 활동조직들을 형성해가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수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들의 융합학문프로젝트이다. 이 연구는 특히,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지역의 인종·정치적 기관들(ethnopolitical organizations)의 특성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이 프로젝트는 16개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22개에 달하는 인종·정치적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 118개의 합법적 조직 및 불법적 테러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약 24년간의 기간 동안 수집하였고, 총1,739건의 테러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게 되었다. 그 중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각 국가로부터 불법적 단체로 규정된 58개의 단체에 대한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1) 종속변수

테러집단의 폭력적 테러활동. 종속변수는 테러집단의 다양한 유형의 폭력적 테러 활동을 하나의 종합변수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변수에 포함된 폭력적 테러의 유형은, 무력공격, 방화, 암살, 인질납치, 폭탄테러, 비행기납치, 대인납치, 자살테러공격, 화학물질을 사용한 테러의 9가지 유형이다 (Chrombach alpha= .60).

2) 독립변수

디아스포라의 지원. 각 테러집단들이 활동시기에 디아스포라로부터 테러활동에 대한 지원과 지지(예, 재정적 지원 등)를 받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특히, 어떠한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테러집단들이 받은 디아스포라의 지원을 (1) 비군사적 재정지원, (그렇다 =1, 아니다 =1) (2) 비폭력적 군사적 지원(그렇다 =1, 아니다 =1)의 두 종류의 이항변수들로 세분화 되어 분석모델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지

지는 테러집단들의 재정충당, 무기와 기타 로지스틱의 제공,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모집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테러활동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 집단의 폭력적 테러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예측된다.

디아스포라 모국의 고통(grievance)과 관련된 테러집단의 전략. 이 변수는 테러집단이 내세우고 있는 모국가와 관련된 고통이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테러활동과 관련 있는 디아스포라는 대부분 모국가에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그리고 문화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의 고통(grievance)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의 고통과 관련해서 테러집단의 활동은 모국가의 특정한 고통의 해결하는 것이 집단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모국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예를 들면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면 테러집단이 현재의 모국가의 정부에 대항하면서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는 테러집단의 활동에서 이들 집단이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의 모국가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통 등이 이들 디아스포라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의 해결을 주장하는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발견한 것과 주장한 내용에 근거하여 테러집단의 목적이 (1)모국가의 정치적 고통해결 (1=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차별을 제거하는 것; 2=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차별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창조; 3=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디아스포라 집단의 자치적 단체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 4=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것), 그리고 (2)모국가의 경제적 고통해결(0=없음; 1= 모국가의 경제적 차별의 철폐를 이루는 것을 통해 경제적 고통의 해결을 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주장함; 2=경제적 고통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해결정책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을 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주장함)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변수화 하였다. 테러집단의 주장이 각각의 유형의 모국가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할수록 디아스포라의 지원관련 요인들을 중재하여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강압적 지원요구전략 테러집단이 디아스포라로부터 지원을 요구하는 방식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재정적 지원과 물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전략의 사용을 변수화 하였다(0=전략이 아님; 1=부분적이거나 거의 적용되지 않는 전략; 2=주요하게 적용되는 전략).

3) 통제변수

이 변수들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상관요인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이 통제변수들로 이 연구에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절히 포함하여 디아스포라의 지원 및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또한 이러한 변수들이 디아스포라가 테러집단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종교적 이념의 강조. 테러집단의 목적이 특정 종교적 이념을 전파하고 대중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활동을 테러집단의 운영목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관련 종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경우(=1)와 그렇지 않은 경우(=0)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단일화 된 강력한 리더십. 테러조직이 강력한 단일 인물의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변수화 하였다(1=예, 0=아니오). 강력하고 카리스마있는 단일 인물이 리더를 맡고 있는 테러집단은 디아스포라를 동원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고 결과적으로 폭력적 테러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측된다.

약한/비중앙집권적 리더십. 테러집단의 조직이 원래 중앙집권적인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각 단체의 하부조직에 나누어져 있는 리더십의 형태를 변수화 하였다(1=예, 0=아니오). 테러단체의 약한/비중앙집권적 리더십은 디아스포라를 동원하는 능력이 떨어져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강압적인 거주국가의 대테러 정책. 각 테러집단들이 공격의 대상, 또는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국가들의 정부에서 각 테러집단들에 대한 대테러전략이 폭력적인 대응책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사용하여 변수화하였다. 이 변수의 국가의 강압적 대테러 대응책의 적용은 다음의 3가지 단계로 측정되었다(1=테러대상국가의 테러집단에 대한 테러대응전략이 치명적으로 강압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2=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대응전략으로 간헐적이지만 치명적인 강압적 대응을 사용한다; 3= 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전략은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수준의 강압적 대응이다).

3. 연구분석방법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집단들과 변수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술적 통계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1>. 그리고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2>.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지원과 테러집단들의 폭력적 활동의 관계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기법이 적용되었다 <표 3>.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에 나타난 테러집단의 명칭이 <Appendix 1>에 보고되어 있다. <Appendix 1>의 목록에 제시된 테러집단들은 근거활동지역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인 단체들로서 MAROB 데이터에 수집된 집단들 중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지명된 단체들이다.

IV.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표 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적 통계분석결과
(총 58개 집단의 총 714사례수)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테러집단의 폭력적 테러활동	.72	1.07	0	9
독립변수				
디아스포라의 지원				
비군사적 재정지원 (그렇다=1)	.05	.22	0	1
비폭력적 군사지원 (그렇다=1)	.05	.21	0	1
디아스포라 모국의 고통과 관련된 테러집단의 전략				
테러집단의 목적이 모국가의 정치적 고통해결 ^a	2.77	.83	1	4
테러집단의 목적이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해결 ^b	.54	.94	0	2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강압적 지원요구전략				
종교적 이념의 강조 (그렇다=1)	.38	.48	0	1

변수	평균 (비율%)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단일화 된 강력한 리더쉽 (그렇다=1)	.17	.39	0	1
약한/비중양집권적 리더쉽 (그렇다=1)	.20	.40	0	1
강압적인 거주국가의 대테러정책 ^c	1.42	.65	1	3

^a 1=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차별을 제거하는 것; 2=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차별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창조; 3=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디아스포라 집단의 자치적 단체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 4=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이 새로운 독립국가를 이룩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것; ^b 0=없음; 1= 모국가의 경제적 차별의 철폐를 이루는 것을 통해 경제적 고통의 해결을 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주장함; 2=경제적 고통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경제적 해결정책을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을 테러집단의 가장 주된 목적으로 주장함; ^c 1=테러대상국가의 테러집단에 대한 테러대응전략이 치명적으로 강압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2=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대응전략으로 간헐적이지만 치명적인 강압적 대응을 사용한다; 3= 테러대상국가가 테러집단에 대한 대테러전략은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수준의 강압적 대응의 사용.

<표 1>의 기술적 분석결과는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테러집단들은 평균적으로 7가지 유형의 폭력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포함된 테러단체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지원여부와 관련해서는 비군사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약 5%에 달하였고, 비폭력적 군사지원을 받는 단체들 역시 약 5%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본의 집단들은 평균적으로 디아스포라에 부분적으로 강압적 지원을 요구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아스포라의 모국과 관련하여서 테러집단이 내세우는 정책적 주장이 모국가의 정치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을 내세우는 단체들은 대부분 모국가의 정치적 차별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창조하거나 모국가가 출신 집단의 자치적 단체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관찰이 되었다. 그리고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의 해결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모국가의 경제적 차별의 철폐를 이루는 것을 통해 경제적 고통의 해결하겠다는 수준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테러집단들의 리더쉽은 단일인물에 의한 강력한 리더쉽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약 18%이었으며, 분열된 리더쉽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체들은 약 4%였다. 그리고 약하거나 비중양집권적 형태의 리더쉽을 보이는 테러 집단들은 약 20%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포함된 테러집단들에 대한 대상 국가의 대테러 정책의 강압성의 강도는 대부분이 강압적인 대응책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치명적이지만 간헐적으로 강압적 대응을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종교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적 이념의 단체들은 약 38%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이변량 상관관계분석결과

이 상관관계분석결과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독립변수들은 없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표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결과(총 714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	1									
(2)	.27*	1								
(3)	.40*	.14*	1							
(4)	.27*	.23*	-.08	1						
(5)	.07*	-.16*	.23*	-.20*	1					
(6)	.03	.07*	.06	-.35*	.39*	1				
(7)	.07*	-.04	.01	.10*	.08*	.04	1			
(8)	-.06	-.03	-.05	-.36*	.09*	.46*	-.10*	1		
(9)	.44*	.08*	.11*	.18*	.14*	.09*	-.27*	-.20*	1	
(10)	.29*	-.01	.31*	.03	.18*	-.10*	.03	-.04	.32*	1

* P < 0,05

3.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결과

<표 3>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들의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되는 변수들이 함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각각 변수들의 영향력과 상호 관련성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독립변수들을 4가지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회귀분석모델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모두 4가지의 단계별 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여 테러집단의 폭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과 독립변수들 간에 종속변수의 발생에 중재 또는 조정의 역할을 하는 변수들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먼저, 모델 1에서 이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독립변수인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

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비군사적 재정적 지원(Beta= .38***)과 비폭력적 군사적 지원(Beta= .21***) 모두 가설 1에서 예측한 비와 같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행위를 유의미하게 그리고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수의 포함만으로도 이 모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4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 변수들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모델 2는 앞선 모델 1에 모국가의 정치적 및 경제적 고통해결을 위한 테러집단의 주장과 전략이 이들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테러집단이 정치적 고통해결을 위한 전략을 더 강경한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할수록(Beta = .27***), 그리고 경제적 고통해결의 전략을 더욱 강경한 형태로 이루겠다고 주장할수록(Beta = .27**) 이들의 테러활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두변수가 모델 2에 포함되자 모델 1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회귀계수에 다소 변화가 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디아스포라의 재정적 지원의 Beta 값은 약 0.06 정도 감소하였다(Beta = .38***에서 .31***). 그러나 비폭력적 군사지원의 변수의 Beta값은 약 0.06정도 증가하였다(Beta = .21***에서 .27***). 이러한 결과는 새로 모델 2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해서 일부 변수는 중재(mediation)를 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변수는 새로운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조정(moderation)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모델의 R-square 는 모델 2에 비해 .079증가하여 모델의 설명력이 약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모델 3에서는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지원의 모집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전략을 취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테러집단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디아스포라에게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요구할수록 이들의 폭력적 형태의 테러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eta = .12**). 그리고 다른 독립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선 모델 2에 포함되었던 변수들의 beta 값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앞선 모델 2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포함되었을 때 디아스포라의 지원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변화만큼의 상당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델 2에서 모델 3로의 R-square변화 역시 .079로 전체 큰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강압적 지원요구 전략의 변수가 포함된 것이 전체 모델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 선 모델 2의 모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고통

해결을 위해 테러집단이 선전하는 전략이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 간에 특정한 역할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모델 4는 앞선 모델 3에 기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주요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이 변수들은 이 연구에서 통제변수들로 구별되었지만 다른 주요 선행연구들에서는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들이다. 이 요인들이 분석모델에 포함됨으로써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독립변수들과의 관련성도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변수들의 포함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관련된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당한 크기로 유지하는 지 여부를 검증하여 디아스포라의 관여 및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앞선 모델 3에 포함되었던 독립변수들 한 변수를 제외하고 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유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회귀계수가 다소 감소하거나 혹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디아스포라의 비군사적 재정지원변수는 회귀계수가 다소 감소하였는데(Beta=.30*** 에서 .28***), 비폭력적 군사지원변수(Beta=.28*** 에서 .24**)로 보다 많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정치적 고통해결에 대한 전략의 정도를 반영한 변수 역시 회귀계수가 다소 감소하였다(Beta=.26*** 에서 .24***). 그리고 테러집단이 디아스포라에게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을 모집하는 경우를 반영한 변수는 약간 증가하였다(Beta=.12**에서 .14**). 이에 반해서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해결에 대한 전략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는 앞선 모델 3에서 나타난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지고 회귀계수의 크기도 거의 없어졌다(Beta=.11* 에서 .05). 이러한 결과는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의 선전이 모델 4에 포함된 변수들에 의해 완전히 중재(mediation)된 효과가 발생하여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계수의 크기가 사라진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그리고 모델 4에 새롭게 포함된 변수들은 테러집단의 전략이 종교적 이념을 강조하는 것과 테러집단이 약하거나 비중양집권적인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거주 국가의 정부가 해당 테러집단들에 대해 강압적인 형태의 대테러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측정하는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테러집단들의 폭력적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적 이념을 생활에서 강조하

는 테러집단의 이념적 표방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ext{Beta}=.36^{***}$), 테러집단이 활동하는 대상국가의 정부정책이 강경한 대테러정책일수록 이들 집단의 폭력적 활동이 더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ext{Beta}=.35^{***}$). 그리고 약하고 비중앙집권적인 리더십은 폭력활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text{Beta}=-.15^{***}$). 그 외의 변수인 강력한 단일 리더십의 변수는 이 연구에서는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모델 4의 분석은 전체 R-square를 .163 증가시켜 모델의 설명력이 약 6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면서 각 변수들의 포함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진단을 함께 수행하였다. 전체 모델 1에서 4까지의 분석결과 독립변수들의 VIF 지수는 1.02에서 2.19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역사적으로 세계 많은 곳에 늘 특정한 인종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나누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존재해왔다.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인류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디아스포라의 존재가 테러집단의 불법적이고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디아스포라의 급진화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는 일명, “홈그로운 테러(homegrown terror)” 또는 “외로운 늑대의 테러(a lone wolf terror)” 등의 테러사건들로 불리 우며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의 관계의 변화는 앞으로의 테러활동이 점점 더 심각하고 예방하기 어려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부족한 학문과 실무적 정보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가 미진하였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증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한 것은 이 연구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결과는 연구의 가설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에서 예측한 대로 디아스포라의 재정적 지원과 비폭력적 군사적 지원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를 증가시키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테러집단의 대응적 전략이 디아스포라의 모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선전할수록 이들 디아스포라가 이러한 강경한 집단의 폭력적 테러활동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테러집단이 디아스포라의 모국가의 고통에 대해서 강경한 전략을 선전하는 것은 이 변수들이 디아스포라의 지원여부 그리고 정도에 중재 또는 조정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표 3〉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및 다른 변수들과 테러단체들의 폭력적 활동의 관계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총 714 사례수)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비군사적 재정지원	1.84	.23	.38***	1.50	.23	.31***	1.14	.23	.30***	1.23	.20	.28***
비폭력적 군사지원	1.02	.23	.21***	1.53	.24	.27***	1.16	.23	.28***	.70	.21	.14**
모국가의 정치적 고통해결				.26	.04	.27***	.23	.04	.26***	.16	.04	.24***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해결				.22	.07	.13**	.03	.07	.11*	.24	.07	.05
테러집단의 디아스포라에 강압적 지원요구전략							1.02	.34	.12**	.98	.29	.14**
종교적 이념의 강조										.91	.12	.32***
단일의 강력한 리더쉽										.03	.11	.01
약한/비중앙집권적 리더쉽										-.72	.13	-.15***
강압적인 거주국가의 대테러정책										.58	.07	.35***
R-square	.46			.54			.55			.68		
R-square change	.212			.079			.015			.163		
F-값	53,00***			40,18***			34,46***			38,04***		

* P < 0.05, ** P < 0.01, *** P < 0.001

즉, 이 변수들이 분석모델에 포함되었을 때, 디아스포라의 재정적 지원의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디아스포라가 재정적으로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모국가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디아스포라가 테러집단에 대해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서 테러집단들이 모국가의 여러 문제들과 고통에 대해 강경한 태도의 전략을 선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 변수들의 중재의 역할의 가능성이 발견된 것이다. 그리고 비폭력 군사적 디아스포라의 지원은 이들 테러집단의 모국가에 대한 전략이 강경해 질수록 함께 더 증가한다는 조정의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의 조정이나 중재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 연구가 표방하는 연구목표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에서 분명한 관계가 밝혀질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집단의 종교성의 표방정도와 디아스포라사회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내기위한 강압적 테러집단의 요구는 가설 3에서 예측한 대로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을 증가시키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가설 4의 예상대로 테러집단의 약한 리더십은 디아스포라의 테러집단의 활동지원을 감소시키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앞선 가설 3과 4의 예상과 달리 테러집단에 대한 디아스포라의 거주국가의 강압적 진압이나 대응은 오히려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은 폭력적 테러활동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관련해서, 이는 데이터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시간적 인과성을 지키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폭력적 테러활동을 많이 하는 집단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강경한 대응을 수용하였을 반대의 인과관계의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강력한 단일 리더십 변수의 경우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달리 다른 주요 독립변수, 디아스포라의 지원,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고통에 대한 전략, 그리고 테러집단의 강압적 지원모집 등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됨으로써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분석결과는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 해결에 대한 전략 변수가 앞선 모델 1부터 3까지에서 보여준 통계적 유의미성과 회귀계수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집단의 모국가의 경제적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 변수가 모델 4에 포함된 새로운 변수들에 의해 완전히 중재된 효과가 발생하여 이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회귀계수의 크기가 사라진 것이 아닌 가 의심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복잡한 중재 또는 조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논문의 주제가 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후의 2차적 분석을 수행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반드시

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한 형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중재 또는 조정을 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이해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현재의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서 앞으로 더욱 급진화된 형태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은 현재의 테러의 위협을 몇 배나 더 증폭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보여준 대로 디아스포라의 모국에서의 고통을 테러집단이 이들의 지원을 모집하기 위해 선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거나 이들 테러집단의 선전적 전술이 실패하는 것 또는 선동을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디아스포라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대로 디아스포라와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 간의 관계에 다양하게 얽혀있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디아스포라를 선동하는 테러집단의 요인과 그 외의 요인들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여 급진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가 많은 수의 사례수를 확보하면서도 테러집단의 다양한 폭력활동과 관련된 독립변수들을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현재 테러집단의 폭력적 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디아스포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서술적 논의를 뛰어넘어 20여 년간의 실존하는 테러집단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 활동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디아스포라의 지원여부 및 관련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매우 큰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급진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이 시점에서 이들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의 지원이 급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큰 공헌점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공헌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중요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모든 변수들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들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에 있어서 해석을 변수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이해하는 탐색적인 차원으로 제한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아스

포라의 급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디아스포라의 개별적인 개인들의 급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적 단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또한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중재, 또는 조정역할 등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제 2의 분석이 필요하였지만, 이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는 부분이어서 다음의 연구로 넘기고자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보다 개인적 단위의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인과관계적인 추론이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성, 즉 조정 또는 중재 등의 복잡한 관련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다면 디아스포라와 테러리즘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은영(2013). 테러집단의 범죄 집단과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분석연구.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37호: 85 - 108.
- 박준석(2008). 테러대응을 위한 국가기관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호경비연구, 제 17호:157-172.
- 윤민우(2013). 계량분석을 통한 폭탄테러사건의 패턴분석.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 317-433.
- 윤민우·김은영(2012).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안보.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1호: 157-183.
- 윤민우 김은영(2013). 폭탄테러의 경향성 분석: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폭탄테러 사건의 사상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경찰연구 제 12권:279-310.

2. 국외문헌

- Cohen, R. (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 Demmers, J. (2001). Diaspora and Conflict: Locality, Long Distance Nationalism and Delocalization of conflict Dynamics, *The Public*, 9: 85-96.
- Hoffman, B. (2007). "Radicalization, Terrorism, and Diasporas" (In Hoffman et al) *The radicalization of diasporas and terrorism*, RAND.
- Koinova, M. (2013). Four types of diaspora mobilization: Albanian diaspora activism for Kosovo indecense in the US and the UK. *Foreign Policy Analysis*, 9: 433-453.
- Lyons, T. (2004). "Diasporas and Homeland Conflict", A paper presented workshop on contentious politics, March, 2004. Downloaded from <http://www.bsos.umd.edu/gvpt/davenport/dcawcp/paper/mar0304>
- Menkus, M. (2007), "African diasporas, diasporas in Africa, and the terrorist threat." In (Hoffman et al) *The radicalization of diasporas and terrorism*, RAND.
- Post, J, & Sheffer, G. (2007). The risk of radicalization and terrorism in the muslim communities.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3: 101-112.
- Sirseloudi, M. (2012). The meaning of religion and identity for the violent radicalization of the Turkish diaspora in Germany.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24:807-824.
- Victoroff, J., Adelman, J.R. & Matthews, M. (2012). Psychological factors associated with support for suicide bombing in the muslim diaspora. *Political Psychology*, 33: 791-809.

- Roth, M. P, & Sever, M. (2007). The Kurdish workers party(PKK) as criminal syndicate: Funding terrorism through organized crime, a case study. *Studies in Conflict and Terrorism*, 30:901-920.
- Shain, Y., & Barths, B. (2003)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 442-479.
- Sheffer, G. (2004). "Diasporas and Terrorism" in B. O'Neil, *Insurgency and Terrorism: From Revolution to Apocalypse*. Potomac Books. Dulles, VA.

【Abstract】**Diaspora and terrorism: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aspora support and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in Arab and Africa**

Kim, Eun-Young

The radicalization of diaspora is a new phenomena that have been begun to emerge in the complex picture of terrorism. The existence of diaspora and its supports for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have made the whole dynamic of terrorism more complicated and unpredictabl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spora support and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in the constellation of other significant correlates of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discussed in the prior studies. In analyses, the author utilized a step wise regrssion analyses with a set of variable drawn from an emphatical data collected in Arab and Africa regio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s called as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which is developed by START and Minority at Risk project and contains information terrorist groups in Middle-East and Africa regio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new emergence of the link between diaspora and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and the challenging nature of conducting empirical studies on this topic, this study have great contributions on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as well as terrorism. Other contributions of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discussion.

Key words : Diaspora,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MAROB, Empirical studies, Middle east and Africa region terrorist groups

〈Appendix 1〉 연구분석에 사용된 MAROB 데이터 중 국가들에 의해서 불법적
집단으로 분류된 테러집단의 명단 (n=58)

테러집단이름	테러집단이름	테러집단이름
Al-Mourabitoun	Iraqi Homeland Party	United Azerbaijan Movement
Ansar al-Islam	Iraqi Islamic Party	Partiya Karkari Kurdistan
Asbat al-Ansar	Iraqi National Accord	Kurdistan Socialist Democratic Party
Bahrain Freedom Movement	Iraqi National Alliance	Workers' Communist Party of Iraq
Black September Organization	Iraqi National Salvation Movement	The Reform Movement
Conservative Party	Iraqi Officers Movement	Kurdistan Toilers' Party
Democratic Centrist Tendency	Islamic Accord Movement	Saudi Hizbollah
Democrat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Islamic Action Organization	South Lebanon Army
Fatah/Palestinian Liberation Organizati	Islamic Front for the Liberation of Bah	Supreme Council for the Islamic Revolut
Front des Forces Socialistes	Islamic Labor Organization	The Kurdistan (Kurdish) Democratic Part
Free Officers' Movement	Islamic Movement in Iraqi Kurdistan	Kurdistan Ulusal Kurtulus Partisi
Hamas	Jordanian People's Democratic Party	Movement for the Autonomy of Kabylie
Hizb al-Da'wa al-Islamiyya	Kurdish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f Souther
Iraqi Baath Party	Kurdish Democratic Unity Party	National Revival Movement of Southern A
Iraqi Communist Party	Kurdish Islamic Group	Organization of Revolutionary Toilers o
Iraqi Hizbollah	Kurdish Revolutionary Hezbollah of Iraq	Palestinian Hezbollah
Polisario	Kurdistan Democratic Party	Palestinian Islamic Jihad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	Kurdistan Islamic Union	Palestinian People's Party
United Azerbaijan Movement	Kurdistan People's Democratic Party	Patriotic Union of Kurdistan